



가정통신문

성실하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http://jeongwu.ms.kr>

발 송 일 2023.11.21.
발 송 처 정우중학교
문의전화 537-4682

제 목

학부모를 위한 진로소식지-고교학점제 안내

드림 레터

2023
11호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쉽고 간결한 진로소식지



학부모 On누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
꿈을 키우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꿈

#진로

#수강신청

#대입제도

#학습목표

#자율학습

#자기주도학습

#절대평가



나는아
드림레터 마스크트,
드림이!!

고교학점제는 무엇이고, 언제 시행되나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부터 전면 적용돼요.**

고교학점제로 달라질 고등학교 풍경

1 절대평가 과목 비중이 늘어나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전제로 절대평가가 확대돼요,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에서만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그 외 모든 선택과목에서 절대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2 교실에서만 하는 수업은 이제 그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로 교실에서 생활 하던 학생들이 **강강 시간을 활용하여 인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온라인 등 다양한 장소로 이동해 선택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3 출석만 한다고 졸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각 학년 수업 일수 2/3 이상 출석 시 졸업할 수 있는 현행 요건에 학점 취득 기준과 학업성취율이 추가돼요, **이수 과목 학점 누적 최소 192학점,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이상, 수업 일수 2/3 이상 출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어요.

4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요?

학교는 학생 수요와 시도교육청 선택과목 지침을 반영해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해요,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학업 계획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자기 공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만큼 진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와 함께 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예체능/의학 등 큰 방향에서 진로를 먼저 설정해 보세요. 진로 설정을 마쳤다면 관련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과목을 공부하도록 도와주세요.
-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8년 대입 수능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대입 수능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살펴봐 주세요.



관심사에 따른 선택과목 선택 예시

간호·보건 계열에 관심있는 아이

과학과 사회 과목을 두루 배울 필요가 있어요. 화학과 생명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되므로 두 과목은 심화 수준까지 배워두면 좋아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기 위해 생활과 윤리, 심리학 같은 사회 과목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공학 계열에 관심있는 아이

공학은 수학을 기본으로 하므로 미적분, 기하 등 관련 과목을 모두 들으면 좋아요. 전공 교재 이해를 위해 영어 실력을 키울 필요도 있어요.



1학년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



2·3학년 선택과목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생활과 윤리, 심리학, 보건, 사회·문화 등

2·3학년 선택과목

수학 I·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인공지능 수학

영어 I·II, 독해와 작문 등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안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시도교육청 별로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을 알 수 있어요.
출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www.hscredit.kr) > 고교학점제 운영 > 과목안내

“고교학점제로 달라질 학교 풍경,
자녀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준비가 필요해요!”

